

“오늘이 교단발전·국민행복 디딤돌 되길”



3월 28일 진제 대종사가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을 나와 종정 추대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 추대식 봉행하던 날

진제법원 대종사가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추대되던 3월 28일, 조계사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술렁였다. 진제 대종사 주석처인 부산 해운정사를 중심으로 동화사 등 전국 각지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조계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불심을 잡기 위한 여야정치인의 줄이든 행사 참석에 주요 언론의 취재경쟁도 치열했다.

행사에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부의장 맡은 스님이 대독한 추대사에서 “종정은 한국불교의 법통과 종지의 계승자이며 수행과 법력의 위력을 발해 불자와 우리 사회에 진리의 근간을 제시하는 법의 본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로회의 부의장스님은 “진제 대종사야말로 모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구현해

진일보하고자 하는 한국불교와 모든 생명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신명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와 세계민방에 ‘희망의 공성’을 울릴 것이라 확신한다. 산승 또한 인연 대중들의 밝은 지혜의 마음에 함께해 가까이 종정 추대에 일심정려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종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진제 종정 예하는 경하-해월-운봉-함국 선사로 이어지는 선가 법맥을 계승해 부처님 법등을 크게 밝혀 드신 수행자의 표상이다”라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수행자에게 더없는 다행이다. 이는 시대와 사회에도 커다란 축복이기도 하다. 오늘의 이 뜻 깊은 자리가 교단 발전, 국민 행복,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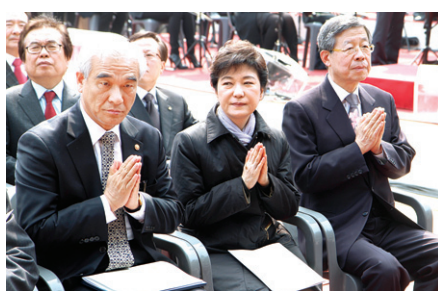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제 종정스님에게 주장자를 봉정하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진제 종정 추대를 계기로 부처님 자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사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는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이다. 만 리 밖에서도 듣게 되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저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헌사에서 “종정예하의 교시를 잘 받들어 삼보종지와 불교중흥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추대식 후 진제 종정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평화 릴레이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1000일 정진등’ 점등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추대식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추대식에는 최광식 문광부 장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동국대 김희욱 총장 등이 참석했다.

스님과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등 조계종 스님들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대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이 이웃종단 지도자와 박희태·정세균·고홍길·박진·주호영·조윤선 의원 여야 정치인과 김희욱 동국대 총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선 기자 cestana@hyunbul.com

‘1000일 정진’ 시대 소망 담아 힘찬 첫발

강정마을-쌍용차-팔당-이웃종교인-다문화 가정 등 “생명평화 기운이 온누리에 흘러넘치길” 염원

해군기지 문제로 생명평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강정마을,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팔당 두물머리, 노동자를 공장으로 보내달라고 외치는 쌍용차 평택공장을 비롯해 이웃종교인, 통일운동가,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를 찾았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3월 28일 종정 추대식 직후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1000일 정진결사를 임재했다.

행사는 진제 종정스님의 증명에 이어 본부장 도법 스님이 정진등에 점화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 정진에 나선 김봉규 강정마을 홍보부장과 동참자들은 정진단 앞에 ‘구렁이를 지켜주세요’라고 쓴 제주에서 가져온 돌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김 홍보부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삶의 원천이다. 강정마을 주민 뿐 아니라 구렁이와 주변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두 번째로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참자들은 “생명의 땅 팔당 유기농지가 지켜지길 기원하며 두물머리와 강정마을이 생명평화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참 잔찰”이라고 기록을 남긴 뒤 “이는 평화의 순 우리말”이라면서 어떤 소중한 가치들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가꾸어 갈 때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웃종교인으로 참여한 김경일 신부와 김민해 목사 등은 도법 스님과 함께 정진을 마친 뒤 “생명평화의 기운이 천일기도를 통해 온 누리에 흘러넘치길 기원한다”, “근거 없는 낙관, 생명평화 1000일 정진기도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 정진을 알리는 점등식을 하고 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생명평화기도를 통해 더 이상 죽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고귀한 내 동지와 가족들을 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 대학생 전법단 사무국장 수안 스님과 김상사 청년회 회원들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발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끝고루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조동선 기자

만양의 황금도 다투면 부족함이나 서툰 황금이라도 사양하면 남음이로다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스님 법어

踏破千聖頂額上(답파천성정역상)하니
世出世間不思議(세출세간부사)로다.
棒下圓成無生忍(봉하원성무생인)하면
一超直入如來地(일초직입여래지)로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를 밟아 파하니
세간과 출세간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할이로다.
주장자 아래 남이 없는 진리를 뚜렷이 이를 것 같으면
한 번 뛰어서 바로 부처님 지위에 이룸이로다.

寂滅涅槃(적멸열반)이 卽是(즉시) 仁義禮智(인의예지)요
仁義禮智(인의예지)가 卽是(즉시) 寂滅涅槃(적멸열반)이라.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우니 곧 적멸열반이라.

眞道而行(진도이행)에
風行草履(풍행초연)이로다.
참 진리의 도를 행함에
바람이 불어 풀이 누움이로다.

“人貪(인빈)인함은 智短(지단)이요, 馬驕(마슈)하면 毛長(모장)이라. 사람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아르면 털이 길다” 하였으니,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려고 할진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이 회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一念(일념)이 지속되게끔 노력할지이다. 속생(속생)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생(생)에 나고 죽음을 면하리오.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덕이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자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력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음이로다.

이 참나를 바로 알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만인 앞에 진리의 眞(眞)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유자재함이다.

지금 서구의 지식인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성회복의 대안으로 간화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가지가지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참선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참선을 잘 함으로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爭鬪不足(쟁축부족)이나 讓卽有餘(양즉유여)로다.

만양의 황금도 다투면 부족함이나,
서툰 황금이라도 사양하면 남음이로다.

四海五湖(사해오호) 형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집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 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살핌시다.

山池魚龍(산포구수)하고 水摩魚鱗(수마어계)하니, 산은 모든 새와 짐승을 안아 기르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베풀고, 물은 모든 고기와 어패류를 양육하며 인류와 무정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니, 산과 물과 같은 덕행을 행하여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기시라.

오늘 이 시대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를 주도할 절실한 염원인 화두는, 한반도에 남북이 함께 비폭력?지비무력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지혜광명이 밝아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평화의 출현한 대화합의 장에서 남북동포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자손만대로 물려줄 통일조국을 성취하여 세계평화를 이끌어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될 그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徹然何處寘(만고취연허처머)고

頭顱物物現古風(두두물물현고풍)이로다.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두두물물이 고통의 진리를 드러냄이로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빛명상 | 문의전화 1588-3138

인터넷빛명상 무료체험하기 인터넷빛명상 검색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 책에서 찾아라!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빛(viit)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순환의 법칙

이 책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빛(viit)을 내면에 충전하는 빛(viit)명상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심신의 정화,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빛(viit)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천의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빛(viit)을 만나면 알게 모르게 심신이 정화되고 현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만 그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상당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추천한 책 >

비과학·반과학·탈과학도 아닌 초과학적인 세계로서의 빛(viit) -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상임고문)
건강하고 풍요롭게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 - 강석진 (한국전문경영인회 이사장, 전 GE Korea 회장, 서경대학교 이사)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는 최상의 에너지 -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및 능률 향상의 해택 - 배재욱 (연호사, 전 청와대 사정 비서관)

도서출판 로대 | 정광호 지음 | 12,800원

(중앙일보 2011.11.10 문화면(26면) 전면기사)

항기와 빛명상이 있는

그림창방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정광호 작가의 글과 담원 김창배 화백의 차(茶)그림이 어우러져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책

도서출판 로대 | 지은이 정광호 | 그림 담원 김창배 | 12,800원
02)523-3183

교보, 영풍, 반디 전국서점 베스트셀러 주요 언론 격찬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강석진 전 GE-Korea 회장, 수만 명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꾼 화제의 베스트셀러! 독자들의 성원으로 양장 특별판 출간